

비교 셈족 언어학과 원셈어 **tihām-*

배철현*

1. 들어가는 글

성서를 포함한 경전(經典)의 특징은 ‘구전성’이다. 성서를 기록한 학자나 서기관은 이전에 없었던 내용을 창작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회자되어온, 특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 기억에서 추출한 것이다.¹⁾ 경전은 기억할 만큼 재미가 있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만큼 설득력이 있는 책이다. 또한 변천하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고전 중 고전이 되어 특정 공동체의 ‘삶의 표준’이 된 책이다.

경전에 축자적인 의미를 부여한 전통은 고대 인도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 지침이 되는 금언집을 ‘수트라(*sutra*)’라고 불렀다. 수트라는 후에 힌두교와 불교 경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그 축자적인 의미는 ‘사물이나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실’이다.²⁾ 수트라는 고대 인도에서 잎사귀에 적힌 글을 실로 묶은 것이다. 인도 전통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은 책은 사실 인도 경전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예외적이다. 힌두교 경전은 기록하거나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시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현자들 사이에서 ‘암송된 시’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디아스포라 포로생활을 시작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영적이며 비가시적인 대체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만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신시켜 주는 장치는 없었다. 후대 모세오경의 편집자에 의해 여러 군데 배치된 소위 ‘제사장 계열 글들(*Priestly Writings*, 이하 P)’은 실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우주 창조 이야기, 인간 창조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 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교수, 고대근동언어와 종교.

1) Albert B. Lord, *The Singer of Tales*, eds. Stephen Mitchell & Gregory Na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13.

2) 이 단어는 ‘묶다’라는 뜻을 지닌 산스크리트어 어근 *siv-*에서 파생하였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라틴어 *suāre*와 영어단어 *sew*는 모두 원인도유럽어 **syuH*에서 유래하였다.

P는 유대 피난민들에게 그들이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며 절망에 빠진 포로들로, 한 때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던 과거를 회상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숭고한 인간이란 점을 강조한다. P의 세계관을 그 당시 바빌로니아의 세계관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우주창조 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하급신들 대신 노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체인력이었다.³⁾ 이들의 관심은 우주의 질서였다. 바빌로니아 건국 신화인 [에누마엘리쉬]에 의하면, 바빌론 만신전에서 최고신으로 등극한 마르дук신이 바다의 신이며 혼돈의 신인 ‘티아맛’ 여신과 그녀의 정부인 ‘킹구’를 살해한 후, 다른 신들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킹구의 피로 인간을 창조한다. 이 신화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이전에 하급신들이 맡았던 노동, 특히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바닥의 침적토를 퍼 올리는 일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P는 바빌론 신화로 대표되는 근동의 세계관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우주 창조 이야기를 기술한다. P의 자료라고 여겨지는 창세기 1:1-2:4상반절은 바빌론 신화처럼 이원론적이거나 다신론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혼돈의 여신 ‘티아맛’이 창세기 1:2에 등장하는 ‘심연’이라고 해석되는 히브리 단어 ‘테흠(*təhôm*)’과 어원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에누마엘리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묘사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다섯째 날 창조되었다. 바빌론에서 태양과 달이 각각 사마쉬(Shamash)와 신(Sin)으로 불리며 각각 메소포타미아의 사파르와 우르의 주요신들이었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낮과 밤을 다스리는 천체일 뿐이다. 먼저 테흠의 다양한 의미를 구약성서에 등장한 몇몇의 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구약성서에 등장한 테흠(*təhôm*)의 몇몇 용례들

성서에서 테흠은 대개 ‘심연(深淵)’이라고 번역된다.⁴⁾ 또한 우주가 창조될

3) 수메르의 우주창조신화인 [엔키와 닌마], 바빌로니아의 홍수신화인 [아트라하시스], 그리고 바빌론 건국신화인 [에누마엘리쉬]에서 인간은 하급신들의 노동을 대체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수가 많아져 시끄럽게 굴자 신들이 인간들의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홍수로 인간을 몰살시킨다.

4)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 36번 등장한다: 22번은 단수, 14번은 복수이다. 이 용어는 정관사 없이 거의 고유명사처럼 34번 등장하고, 이사야 63:13(단수)과 시편 106:9(복수)에서만 정관사와 함께 쓰였다.

때 혼돈을 상징하는 원초적인 바닷물을 상징한다. 창세기 1:2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wəhā'āreš hāytā^h tōhū wābōhū wəḥōšek 'al-pənē təhôm
wəru^h 'ēlōhīm mərəḥēpeṭ 'al-pənē hammāyim
 “(그 때에) 아래는 ‘혼돈’했고, 어둠은 ‘심연’ 위에 있었으며,
 강한 바람은 ‘물’ 위에서 거세게 불고 있었다.”⁵⁾

위 문장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혼돈’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며, ‘심연’과 ‘물’은 그 혼돈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이러한 혼돈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강한 바람인데, P 기자는 강한 바람을 뜻하는 용어로서 ‘루아흐 엘로힘’이란 관용어구를 사용하였다.

창세기 7:11하반절과 8:2상반절은 대홍수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묘사하는 구절들이다.

창세기 7:11하반절
bayyôm hazze^h niḥqə'û kāl-ma'yanōt təhôm rabbā^h
wa'arubbōt haššāmāyim niṭtāhū
 “그 날에 커다란 심연에 있던 모든 샘물들이 터졌고,
 하늘에 있던 홍수 문들이 열렸다.”

창세기 8:2상반절
wayyissākrū ma'yanōt təhôm wa'arubbōt haššāmāyim
 “심연에 있던 샘물들과 하늘에 있던 홍수 문들이 닫혔다.”

이 문장들에서 테홈은 홍수를 촉발하는 거대한 물을 담고 있는 바다의 심연이다. 홍수 사건은 제2의 우주창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로 테홈이 사용되었다.

출애굽기 15:5에서 히브리인들이 갈대바다를 건넌 후, 테홈은 파라오 군대를 삼켜 파괴한다:

təhōmōt yəḳasyūmū yārdū bimšōlōt kəmə-'āben

5) 이 논문에 등장한 성서 구절은 논문의 취지와 논지를 위해 필자가 직접 번역한 것이다.

“심연들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은 돌처럼 깊은 곳들로 내려갔다.”

이 문장에서는 ‘테흠(*təhôm*)’의 복수형인 ‘테호모쓰(*təhômōt*)’가 등장한다. 모세의 영도 아래 히브리인들이 갈대바다를 건너간 후, 테호모쓰가 뒤따라오던 파라오 군대를 삼켰다. 테호모쓰는 창세기 1:2의 단순한 무생물인 심연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 그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이다.

시편 148:7에서 테흠은 출애굽기 15:5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생물들, 바다의 괴물들과 동등한 심연의 어떤 존재이다:

hāḏōlū ʾet-yhwh(ʾāqōnāy) min-hāʾāreṣ tannînim wəkol-təhômōt

“주님께 찬양을 드려라! (너희) 땅에 있는 자들과 바다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들이여!”

위에서 언급한 문장들에서 테흠은 단순히 무생물로서 심연이라는 뜻도 있으나, 출애굽기나 시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빌론 혼돈의 여신 티아맛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창세기 1:2에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 테흠은 바빌론 신화와의 연결 고리이다. 히브리 단어 테흠과 바빌론 혼돈의 여신 티아맛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P의 우주관과 신앙관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이 논문에서 비교 셈족어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히브리 단어 테흠의 원셈어(*Proto-Semitic*, 약어로 PS) 형태를 재구성하고, 테흠과 티아맛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3. 비교 역사 언어학과 비교 셈족 언어학

비교 셈족 언어학은 인도유럽어 고전학자들이 18세기말에 시작한 비교 역사 언어학의 자극을 받아 출발하였다. 인도유럽어 고전학자들은 고전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등이 포함된 게르만어가 산스크리트어와 연관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 단순히 고전문헌에 있는 언어들만 비교하는 고전문헌학(*comparative philology*)에서 벗어나 모든 인도-유럽어들의 조상 언어를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 가상의 조상 언어로부터 후대 언어들로 전개되는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비교 역사 언어학(*comparative historical linguistics*)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인도-유럽어의 비교 역사 언어학은 19세기부터 셈어들에 적용되어 비교 셈족 언어학이 태동되었

다. 먼저 비교 역사 언어학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고, 비교 셈족 언어학의 태동과 목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비교 역사 언어학의 태동

비교 역사 언어학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익숙한 유럽학자들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발견하면서 시작하였다. 윌리엄 존스(1746-1794년)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를 공부한 고전문학학자이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후에도 오리엔트 언어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윌리엄 존스는 1783년 작위를 받은 후, 인도 캘커타 대법원의 판사로 임명받아 인도로 여행하였다. 그는 1784년 오리엔트 연구를 위해 ‘벵골 아시아학회(*Asiatic Society of Bengal*)’를 설립하고, 1786년 학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산스크리트어,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이 발표문이 비교 역사 언어학의 출발점이었다.

“아주 오래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보다 완벽하고 라틴어보다 어휘가 풍부하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두 언어보다 정교하면서도 동사의 어근이나 문법적인 형태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사하여 어떤 문헌학자도 이 세 언어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언어에서 유래했다고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비록 이 언어들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매우 다른 어법으로 섞여 있는 고딕어와 쉘틱어도 산스크리트어와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도 이 어근에 참가될 수 있습니다.”⁶⁾

그 후, 가장 대표적인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인도유럽어 비교 역사 언어학은 프란츠 뵘이 1833년에 *Vergleichende Grammatik des Sanskrit, Zend, Griechischen, Lateinischen, Litthauischen, Altslavischen, Gothischen und Deutschen* (1861),⁷⁾ 아우구스트 쉘라이허가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71),⁸⁾ 그리고 카를 브루그만이

6) William Jones, “A Discourse on the Institution of a Society, for Inquiring Into the History, Civil and Natural, the Antiquities, Arts, Sciences, and Literature, of Asia”, *The Works of Sir William Jones*, Vol. 3. (Delhi: Agam Prakashan, 1977), 3.

7) Franz Bopp, *Vergleichende Grammatik des Sanskrit, Zend, Griechischen, Lateinischen, Litthauischen, Altslavischen, Gothischen und Deutschen* (Berlin: Ferd. Duemmler's Verlagsbuchhandlung, 1861).

8) August Schleicher,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Weimar: Hermann Böhlau, 1871).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97)을⁹⁾ 출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브루그만(1849-1919)은 이전의 교리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언어 연구가 아닌, 음성 법칙의 불가침성과 언어 연구 방법론의 엄격성을 주장한 소위 ‘신문법학자학파’(Neogrammarian School)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1886년에서 1893년까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Grundriss*의 1, 2권에서 인도유럽어의 음운론과 형태론을 출판하였다. 같은 책 3, 4, 5권은 베르트홀드 델브뤼크(1842-1922)이 인도유럽어의 문장론을 기술하였다. 이들이 기초를 닦은 인도유럽 역사 언어학은 여전히 유효하여 20세기에 새로 판독된 아나톨리아어와 토카르어만 추가하면 된다. 특히 J. 쿠릴로비츠(1895-1978)는 1927년에 인도유럽어에서 가상어로만 알려졌던 후두음 *h*를 히타이트어를 통하여 그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인도유럽어 역사 언어학의 새장을 열었다.¹⁰⁾

3.2. 비교 셈족 언어학의 태동과 목적

인도유럽어 비교 역사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말에 비교 셈족 언어학이 시작되었다. 윌리엄 라이트가 *Lectures on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1890),¹¹⁾ O. 린드베르크가 *Vergleichende Grammatik der semitischen Sprachen* (1897),¹²⁾ 그리고 H. 짐머만이 린드베르크와 동일한 책 제목으로 1898년에 출판하였다.¹³⁾ 본격적인 연구 서적들은 카를 브로켈만의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semitischen Sprachen* (1908),¹⁴⁾ G. 베르그스트래서의 *Einfuehrung in die semitischen Sprache* (1928),¹⁵⁾ 그리고 S. 모스카티가 출판한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등이 있다.¹⁶⁾

9) Karl Brugmann,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Strassburg: Karl J. Truebner, 1897).

10) J. Kurylowicz, *Inflectional categories of Indo-European* (Heidelberg: C. Winter, 1964).

11) William Wright, *Lectures on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New York: Macmillan, University Press, 1890).

12) O. Lindberg, *Vergleichende Grammatik der semitischen Sprachen* (Göteborg: Zachrisson, 1897).

13) H. Zimmermann, *Vergleichende Grammatik der semitischen Sprachen, Elemente der Laut- und Formenlehre* (Berlin, Reuther, 1898).

14) Carl Brockelmann,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Semitischen Sprachen I, II, III* (Berlin, Reuther, 1908).

15) Gotthelf Bergsträsser, *GotthelfEinfuehrung in die semitischen Sprach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28).

16) S. Moscati et. al.,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언어들은 인간이 구강 안에서 낼 수 있는 소리의 한정성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몇몇 언어들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유사성은 뚜렷하며 자주 눈에 띈다. 이러한 언어들 사이에 발견되는 동일한 혹은 거의 동일한 단어들은 모든 언어에 등장하지는 않고 특정한 지역 혹은 연관된 언어들에서만 발견된다. 이와 같은 유사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배제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첫째, 언어들 간의 유사성은 ‘우연’일 수 있다. 인간 언어의 구강 구조가 유사하며 그 소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들의 조합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와 현대 이란어인 파르시에서 [bæd]는 ‘나쁘다’라는 뜻이다. 이 두 언어에서 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가 일치한다. 또한 ‘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는 *théos*, 라틴어에서는 *deus*이나, 이 둘은 역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우연히’ 유사한 단어일 뿐이다. 수메르어에서 ‘땅’을 의미하는 KI와 한자 基의 발음과 의미가 유사한 것도 우연일 뿐이다. 둘째, 언어들 간의 유사성은 ‘차용’일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 언어 집단들이 만나면서 상대방의 언어로부터 어휘를 빌리기도 한다. 영어 단어에서 특수한 집 형태를 지칭하는 *iglu*는 에스키모어로 ‘집’을 의미하는 *igloo*를 차용한 것이다. 셋째, 언어들 간의 유사성은 의성어와 같은 ‘보편적 특성’일 수 있다. ‘엄마’를 의미하는 단어들 *mother/mom*(영어), *mama*(이탈리아어), *ma*(힌디어), *ma*(중국어)는 모두 갓난아이들이 웅알거리며 내는 첫 소리인 순음 [m]과 관련이 있다.

언어들이 위 세 가지에 기인하지 않고 어휘가 유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집’과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는 셈족어인 아카드어(기원전 26세기-기원전 4세기)에서 *bītu*와 *šalām*으로, 히브리어(기원전 12세기-)에서 *báyit*와 *šālóm*으로, 페니키아어(기원전 10세기)에서 *bet*와 *šolóm*으로, 고전 에티오피아어인 게에즈(기원후 4세기-)에서 *bet*와 *salām*으로, 시리아어(기원후 5세기-)에서 *baytā*와 *šlāmā*로, 아랍어(기원후 7세기-)에서 *bayt*와 *salām-*으로 등장하지만, 다른 어족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카드어,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게에즈어, 시리아어, 그리고 아랍어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서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만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들에서 이러한 유사성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그것이 우연, 차용, 혹은 ‘언어의 보편적 특성’이 아니라면, 이들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이 언어들에 공통의 언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교 역사 언어학적 방법론의 핵심이다.

위의 예들에서 등장한 ‘집’과 ‘평화’라는 단어의 유사성을 통해, 적어도 아카드어,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시리아어, 게에즈어, 그리고 아랍어는 같은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로 추론할 수 있다.

비교 역사 언어학은 두 개 이상의 언어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언어학적 특징을 연구함으로 그 언어들에 한 공동의 조상 언어에서 유래함을 밝히는 학문 분야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개별언어가 형성되기 이전의 언어 단계를 재구성한다. 이 단계를 원언어(原言語, *proto-language*)라고 부른다. 후대 언어들 간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구문론적 발전 단계를 규명하고, 언어들 간의 유전발생학적 관계(*genetic relationship*)를 확인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한다. 동일한 어족에 속한 언어들에 “유전발생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다”(genetically related)라고 말한다. 이 용어는 생물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용어이다. 학자들은 이 언어들에 소위 원언어라고 불리는 태고 이전의 한 언어로부터 유래했다고 설명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언어로부터 다양한 방언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언어학적 변화를 통해 서서히 달라진다. 언어는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다변화하며,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화한다.

비교 역사학적 방법을 통한 재구성의 목적은 모든 후대 언어들에 — 역사 언어학자들은 ‘딸언어들(*daughter languages*)’이라고 부르며 이 논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비교하여 ‘조상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조상언어를 재구성하면서 언어학적 변화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나아가서 원언어의 음운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 음운론을 다루고, 어휘와 형태론, 그리고 문장론을 포함한 원언어의 문법을 연구한다. 만일 재구성이 성공적이면, 관계된 언어들에 유전발생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유효하다. 예를 들어 70개가 넘는 셈족어들의 원셈어를 재구성할 때, 원셈어를 통해 후대 셈족어들의 형태를 언어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언어학적 성공은 원셈어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다.

비교 역사 언어학을 위해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원셈어(*Proto-Semitic*)’: 원셈어는 후대 셈어들이 유래한 조상언어이다. 이 언어는 노아의 아들 셈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가 말했을 수도 있는 가상의 언어이다. 또는 후대 딸언어들의 유사성을 기초로 하여 비교 역사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얻어진 언어이기도 하다. 원셈어 어휘는 그 단어 앞에 별표(*)를 첨가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원셈어 ‘집’은 **bayt*이다.
2. ‘딸언어(*daughter language*)’: 딸언어는 공동의 조상 언어(*ancestor language*)로부터 유래한 후대 언어들에 이르는 용어이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 모든 언어들

말언어이다. 예를 들어 셈족어에서 아카드어,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아랍어, 게에즈어, 아랍어는 모두 말언어이다.

3. ‘동족 단어(*cognate*)’: 동족 단어는 말언어들 간에 등장하는 동일한 원셈어 단어에서 유래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 형태소(*morpheme*)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báyit*와 아랍어 *bayt*는 동족 단어이다.

4. 테흠의 음운론적 재구성(*phonological reconstruction*)

창세기 1:2에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 ‘테흠’은 심연이라고 번역되었고, 칠십인역에도 심연이란 의미를 지닌 ‘아비소스’로 번역되었다. 테흠은 여성형 명사로 ‘원초적 바다, 심연’,¹⁷⁾ ‘깊은 바다, 원초적 바다’로¹⁸⁾ 번역하였다.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테흠이 바빌로니아 신화 [에누마엘리쉬]에 등장하는 혼돈의 여신이자 바다의 여신인 ‘티아맛(*Tiāmat*)’과 언어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원전 6세기경 [에누마엘리쉬]를 접했던 소위 P 기자가 티아맛과 관련된 신화적, 신학적 주제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테흠과 티아맛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비교 언어학의 음운 재구성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음운 재구성의 첫 단계는 동족 단어들을 모으는 일이다. 비교 언어학적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언어들 간에 동족 단어들을 나열하여 일람표를 만든다.

비교를 위해 창세기 1:2에 등장하는 ‘심연’이라는 의미를 지닌 *tāhôm*에 대한 동족 단어들을 나열하고자 한다:

‘심연’을 뜻하는 셈족 동족 단어 세트

아카드어 ‘바다; 티아맛 여신’: *tiāmtum/tāmtum*; *Tiāmat*(신명)¹⁹⁾

에블라어 ‘바다’(복수형): *ti-‘a-ma-tum/tiāmātum*²⁰⁾

우가리트어 ‘심연’: *ta-ha-ma-tu/tahāmatu*

17)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rill: London, 2001), 1691.

18) Ernest Klein,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7), 693.

19) W. von Soden, *Akkadisches Handwörterbuch* (Wiesbaden: Otto Harrassowitz Verlag, 1985), 1353.

20) D. T. Tsumura, *The Earth and the Waters in Genesis 1 and 2*, JSOT Supplement Series 83 (Sheffield: JSOT Press, 1989), 56.

히브리어 ‘심연’: *təhôm*

타르쿰 아랍어: *təhômā*

아랍어 ‘서쪽 아라비아 해변’: *tihamatu/ tihama*

두 번째 단계는 동족 단어의 음성들 사이의 관계를 살핀다. 예를 들어, ‘바다’를 지칭하는 단어들 간에 자음들과 모음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도표를 그릴 수 있다:

1. 첫 번째 자음

아카드어 *t-*, 에블라어 *t-*, 우가리트어 *t-*, 히브리어 *t-*, 타르쿰 아랍어 *t-*, 아랍어 *t-*

2. 첫 번째 모음

아카드어 *-i-*, 에블라어 *-i-*, 우가리트어 *-a-*, 히브리어 *-ə-*, 타르쿰 아랍어 *-ə-*, 아랍어 *-i-*

3. 두 번째 자음

아카드어 *-θ-*, 에블라어 *-θ-*, 우가리트어 *-h-*, 히브리어 *-h-*, 타르쿰 아랍어 *-h-*, 아랍어 *-h-*

4. 두 번째 모음

아카드어 *-ā-*, 에블라어 *-ā-*, 우가리트어 *-ā-*, 히브리어 *-ô-*, 타르쿰 아랍어 *-ô-*, 아랍어 *-a-*

5. 세 번째 자음

아카드어 *-m-*, 에블라어 *-m-*, 우가리트어 *-m-*, 히브리어 *-m-*, 타르쿰 아랍어 *-m-*, 아랍어 *-m-*

6. 세 번째 모음

아카드어 *-a-*, 에블라어 *-a-*, 우가리트어 *-a-*, 히브리어 *-ə-*, 타르쿰 아랍어 *-ə-*, 아랍어 *-a-*

7. 네 번째 자음(여성형어미)

아카드어 *-t-*, 에블라어 *-t-*, 우가리트어 *-t-*, 히브리어 *-θ-*, 타르쿰 아랍어 *-θ-*, 아랍어 *-t-*

세 번째 단계는 위 도표를 연구하여, 원음가(proto-sound)를 재구성한다. 딸 언어들 간에 음운들을 비교하여 원래 음가를 추론한다. 비교 역사 언어학에서 원음가의 재구성을 위해서 중세 철학자 오컴(Occam, 1288-1348)의 명제인 “*entia non sunt multiplicanda praeter necessitatem*”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²¹⁾ 즉 “논리의 주장에 있어서 수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원칙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간결한 설명이 그것보다 복

21) Hans Hock,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1986), 538.

잡한 설명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이다. 원음가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A라는 음가가 A'라는 음가로 변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B라는 음가가 B'라는 음가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설명이나 가정이 단순하면, 그것이 옳다고 하는 ‘논리 최소화 원칙(Principle of Logical Parsimony)’이다. 원음가를 재구성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향성’이다. 음운 변화의 방향성은 원음가의 재구성을 위해 소중한 단서이다. 방향성이란, 음운 변화는 일반적으로 한 방향(A > B)으로 진행하며 그 반대방향(B > A)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도표에서 두 번째 자음의 경우 딸언어들에서 두 가지 음가 *h*(우가리트어, 히브리어, 타르쿰 아랍어, 아랍어)와 *ø*(아카드어, 에블라어)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h*를 원음가로 재구성하면, 아카드어와 에블라어에서 **h* > *ø*를 가정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 보자. 아카드어(기원전 26세기-), 에블라어(기원전 24세기-)가 나머지 언어들인 우가리트어(기원전 14세기-), 히브리어(기원전 12세기-), 타르쿰 아랍어(기원후 1세기-), 아랍어(기원후 7세기)보다 시대적으로 훨씬 앞선 언어들이지만, ***ø* > *h*로 가정한다면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아무런 음가가 없는 상태인 **ø*가 다른 자음들도 많은데, 굳이 *h*음가로 변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ø* > *h*로 변화하는 것은 무작위적이며 불가능하기 때문에 **h* > *ø*로 추론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며,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서셈어들(우가리트어, 히브리어, 타르쿰 아랍어, 아랍어)에서는 원셈어 자음 **h*가 ‘언어학적 유지’(linguistic retention)를 통해 그 음가를 단어에 간직했고, 동셈어(아카드어와 에블라어)에선 **h*음가가 사라져 모음과 모음 출동 현상을 일으켰다.

두 번째 ‘대중성’이다. 또 다른 원칙들 중에 하나는 방향성의 정신과 연관된 대중성이다. 소수 딸언어들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원음가를 가정할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면, 원음가는 딸언어들 간에 빈도수가 높은 음가이다. 대중성에 대한 가정은 한 언어가 음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 언어에서 음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원음가의 ‘정확성’이다. 재구성된 음가와 그 음운 변화의 특징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예에서 두 번째 모음이 동셈어(아카드어, 에블라어)에서 *i*로, 우가리트어에서는 *a*로, 히브리어와 타르쿰 아랍어에서는 *ə*로, 아랍어에서는 *i*로 나타난다. 히브리어와 타르쿰 아랍어에 등장하는 불명 모음 *ə*는 다른 딸언어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모음 *i* 혹은 모음 *a*가 변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모음 *i*와 *a* 사이에서 어느 음가가 원음운인지 가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동셈어인 아카드어와 에블라어와 서셈어에 속한 아랍어

에서 *i* 음가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가리트어만 등장한 *a*보다 원셈어일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적용성’이다. 이 동일한 음운 변화가 다른 단어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위에서 두 번째 모음은 아카드어와 에블라어, 그리고 우가리트어에서 *ā*, 히브리어에선 *ō*로 등장한다. 이 음운 변화를 ‘가나안어 모음 변화(Canaanite Vowel Shift)’라고 부른다.²²⁾ 가나안어 모음 변화는 셈족어 중 북서셈어(우가리트어, 아람어, 가나안어)에서 가나안어(히브리어, 페니키아어, 모압어, 에돔어)에만 적용되는 음운 변화이다. 원셈어이면서 원북서셈어의 **ā*가 원가나안어에서 **ō*로 음운 변화 한다. 예를 들어 ‘평화’를 의미하는 원셈어 **šalām*에서 두 번째 모음 **ā*는 가나안어에 속한 페니키아어와 히브리어에서만 **ō*로 변화하여 각각 *šolōm*과 *šālōm*이 된다.

다섯 번째, ‘음운의 재구성’이다. 위 단계를 거친 음가들의 음운을 재구성한다. 다른 모든 음가를 추론할 수 있는 원음운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그 단어와 문법적인 형태소도 재구성할 수 있다. 셈어에서 ‘바다; 심연’을 의미하는 원셈어는 **tihām-*이다.

‘테흠’과 바빌론 혼돈의 여신 ‘티아맛’의 관계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궁켈이다.²³⁾ 그는 테흠이 티아맛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P의 창조기사를 신화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²⁴⁾ 위에서 주장한 대로 ‘티아맛(Tiāmat)’에서 히브리어 ‘테흠(*tāhōm*)’을 유추하기는 음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테흠과 티아맛이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용어들은 오히려 ‘(혼돈의) 바다; 심연’이라는 의미를 지닌 원셈어 **tihām-*이 히브리어가 속한 가나안어에서는 테흠으로, 아카드어에서는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 ‘탐툼(*tātum*)’과 혼돈의 여신 ‘티아맛(Tiāmat)’으로 등장하였다.

5. 나가는 글

22) PS **ā*가 히브리어를 비롯한 가나안어(북서셈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ō*가 되었다. ‘가나안어 모음 변화(Canaanite Vowel Shift)’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이미 기원전 14세기 아마르나 단어에서도 적용되었다. J. Fox, “A Sequence of Vowel Shifts in Phoenician and Other Languages”, *JNES* 55 (1996), 40.

23) Hermann Gunkel, *Genesis*, Mark E. Biddle, tran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24) David Toshio Tsumura, *The Earth and the Waters in Genesis 1 and 2* (Worcester, Great Britain: Billing and Sons Ltd, 1989), 46.

창세기 1장에 등장한 우주창조 이야기는 바빌론 창조신화인 에누마엘리쉬의 영향 아래 기록되지 않았다. 테훔은 아주 오래된 원셈어 **tihām-*에서 유래했으며, 유대인들의 우주창조 이야기는 바빌론 우주창조 이야기와 다르다. P 기자는 우주창조 이야기를 반신화적인 방법을 통해 전달한다. 그가 본 우주는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창세기 1:2에 등장하는 테훔은 창조된 우주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 테훔은 우주 질서를 대항하는 혼돈의 상징이 아니며 혼돈의 신의 화신도 아니다.²⁵⁾ P 기자는 테훔을 비신화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비신화적인 의미는 창세기 1:2하반절에 등장하는 “강한 바람이 물 위에서 심하게 불고 있었다”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싸움이나 전쟁 혹은 갈등이 없다.

비교 셈족어의 재구성을 통해 원셈어 형태가 **tihām-*이며, 성서 히브리어 *təhôm*은 기원전 14세기 이전 형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위 ‘가나안어 모음변화’가 아마르나 문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히브리어 *təhôm*은 원셈어에서 강세 음절 앞 모음 생략과 가나안어 모음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음가이다. 원셈어 **tihām-*은 이미 원아카드어에서 ***tiam-*이 되었다. 아카드어에서는 모든 원셈어 자음 **h*가 원아카드어에서 음가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신화 [에누마엘리쉬]에 등장하는 혼돈의 여신 Tiāmat이나, 아카드어에서 ‘바다’를 의미하는 *tiāmtum/tāmtum*이 히브리어 *təhôm*으로 변할 수 없다.

비교셈족어학은 성서번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1) 번역이나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는 어휘나 문장이 성서 히브리어 문법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성서 히브리어가 속한 북서셈족어 혹은 서셈족어, 궁극적으로 원셈족어로 재구성하여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2) 성서 히브리어 *təhôm*과 같이 신화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심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신화소’의 원셈족어 형태를 추론함으로써 셈족언어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각 셈족어에서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3) 구약성서의 언어들인 히브리어와 아람어 단어의 연대를 비교셈족어를 통해 추정하고 해당 단어의 의미를 고를 수 있다. 비교셈족어학이 성서번역자들이 성서를 번역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투고 일자: 2012. 10. 18.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7.)

25) G. F. Hasel, “The Polemic Nature of the Genesis Cosmogony”, *EQ* 46 (1974), 81-102.